이코노 & 비즈 피플

성동욱 하이트진로 광주 지점장

"매출 늘려 지역사회 더 큰 환원"

실적 1위 비결, 직원들과 스킨십 소통
맥주 60%·소주 30% 시장 점유 목표

" '하이트진로 광주 사랑기금 조성사업' 기금 규모를 지난해 보다 늘려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건전한 주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 소주·맥주 통합 지점장을 맡게된 성동욱 지점장은 "지난해 참이슬 판매 금액의 일정액(1본당 각 2원씩) 적립해 조성한 광주전남 사랑기금 2억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며 "올해는 참이슬뿐 아니라 드라이피니시d맥주 판매량을 통합해 1본당 2원씩 적립하는 '하이트진로 광주 사랑기금 조성사업'을 통해 3억여원의 광주전남 사랑기금을 기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성 지점장은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참이슬 판매 상승으로 전국 총27개 지점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최우수지점으로 선정돼 전국에서 영업력을 인정받았다.

하이트진로 광주 판매량에 대해 성 지점장은 "지난 2009년 하이트진로가 광주전남 소주시장에 진출한 뒤 매년 판매 성장을 이뤄 3년사이 월평균 판매량 16만800상자(30병 기준) 시장점유율 21.8%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최우수 지점에 선정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는 "회의를 줄이고 영업직원들과 운동과 스킨십을 통한 사기진작과 업무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것이 전국 1위의 실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올 판매 목표에 대해 성 지점장은 "맥주 시장에서의 하이트맥주의 실지 회복과 드라이피니시d맥주 확산을 통해 광주지역 시장점유율 60%, 참이슬 시장점유율 30% 달성을 이뤄 지역사회에 더 큰 환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 광주지점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성 지점장은 "주류회사 특성상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사회환원사업을 해야 한다"며 "올 해도 광주사랑기금 조성과 情나눔 대학생봉사단운영, 소비자 초청 영화 시사회등을 통해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도록 하겠다"말했다.

성 지점장은 지난해 광주 장애인보치아연맹 봉사활동 중 심판이 부족해 게임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연맹의 이야기를 듣고 심판자격증을 획득하고 장애인보치아 심판협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하이트진로 情나눔 대학생봉사단'은 전국 지점중 유일하게 광주지점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지점장은 "올 상반기 제 7기 60명 봉사단 선발에 430여명이 몰리는 지역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호응이 뜨겁다"며 "이들과 함께 복지시설 노력봉사, 독거노인 도우미봉사 등 주요 복지시설 봉사활동 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내달부터 MS카드 사용 어렵다

〈마그네틱〉

ATM 기기 50% 시범 제한…2015년 전면 금지

다음 달부터 최대 50%의 자동화기기(ATM)에서 마그네틱(MS) 현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집적회로(IC) 카드 전환 종합대책'에서 밝힌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MS현금카드 사용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MS현금카드는 다음 달부터 1년간 일부 ATM에서 사용할 수 없고 2014년 2월부터 전면 제한된다. 2~7월엔 금융회사 영업점에 설치된 ATM 50%에서 쓸 수 없고,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용이 제한되는 ATM은 80%로 늘어난다.

MS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과 현금서비스는 2015년 1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가맹점은 2014년 말까지 MS카드 단말기를 IC카드 단말기 또는 MS·IC카드 겸용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현금카드 6612만장 가운데 IC카드는 6383만장으로 96.5%를 차지했다. MS현금카드는 지난해 2월 말 1만785장에서 12월 말 2293장으로 78.7% 줄었다. MS현금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카드 교체비 등 포함 17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MS카드 단말기 전환비율은 40.2%다. /연합뉴스

알록달록 설빔 23일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유신열) 8층 아동매장에서 직원이 설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 옷을 선보이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광주은행 이웃사랑 성금 1억원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3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16층 시상식장에서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 2013 나눔 캠페인' 참여 일환으로 이웃사랑 성금 총 1억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작년 대형마트 매출 3.3% 줄어

지난해 대형마트의 매출이 2011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지식경제부가 국내 주요 대형마트 매출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매출액은 2011년 12월에 비해 5.0% 감소,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2011년에 비해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무 휴업으로 영업일수가 감소한데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소비심리가 위축된 탓이라고 지경부 측은 분석했다.

제품군 별로 봐도 가전(-7.2%), 생활용품(-2.1%), 스포츠(-0.6%), 잡화(-4.7%) 등 전 품목에서 매출이 줄었다.

백화점 역시 지난해 매출이 2011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은행권 "엔저 피해 줄여라"

수출기업 지원 총력

엔화 약세로 은행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본 회사와 경쟁하는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하면 고객 기업의 부실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원·엔 환율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율 변동 위험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자금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기업금융부 산하에 있는 컨설팅팀 인원을 20%가량 늘릴 계획이다.

원·달러 환율에 이어 원·엔 환율마저 최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상담을 원하는 수출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환 컨설팅은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회계 전문가와 엔화 관련 최고 베테랑 직원을 보강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수출기업을 위해 운영했던 5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도 한도가 소진되면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전국을 돌며 '환율전망 및 환 위험 관리 설명회'를 17차례 열었다.

올해는 기업체가 거래 영업점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본점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상담해주는 '환 위험 관리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수출기업을 위해 특별운영해 온 네고 지원 펀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5억달러 규모로 운영한 펀드를 10억달러로 불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환율 하락에 취약한 업종의 기업 관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환율 하락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하고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기업을 돕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기침체에 보험민원 급증

해지·환급 등 생계형…전년보다 15%↑

금융 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보험민원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전주·제주출장소 포함)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민원은 총 5781건(1일 평균 23건)으로, 전년대비 176건(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담 민원은 2727건으로 전년에 비해 486건(15.1%) 감소했지만 서류 민원은 3054건으로 662건(27.7%) 증가했다.

서류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요구, 대출금리 조정·연체이자 감면 요구, 채권추심 불만 등 생계형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보험 민원은 1695건으로 전년보다 539건(46.4%) 이나 증가했다. 이중 상품설명 불충분과 자필서명 미이행 등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907건(비중 53.5%)으로 보험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권을 제외한 지난해 서류 민원 중 은행 민원은 715건으로 전년에 비해 74건(11.5%), 비은행 민원은 632건으로 43건(7.3%) 각각 소폭 증가했다. 은행과 비은행권 민원의 경우 대출금리 조정요청, 중도금대출 상환유예, 채권추심 불만 등 대출 관련 민원이 635건(비중 47.2%)으로 전년에 비해 122건(23.8%) 증가했고, 예금계좌 부당개설 등 예·적금 관련 민원은 193건(비중 14.3%)으로 전년보다 19건(8.9%) 감소했다. 부당한 채권추심과 신용정보 부당 조회 및 등록 등 신용정보 관련 민원은 169건으로 전년 대비 44건(35.2%)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민원 빈발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